

# ECHO<sup>#01</sup>

Engaging Communicating Hosting Outreaching

Soyez fier de vous : 당신을 자랑스러워하라



# ECHO : 올림

김성해 교수님

“당신을 자랑스러워하라!” 대구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에서 발간하는 웹진 ‘ECHO’의 슬로건입니다. 막연하게 좋게만 낙천적으로 생각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밑물처럼 또 어둠처럼 찾아 오는 “너는 못난이야, 패배자야” 라는 세상의 편견에 맞서자는 약속입니다. 세상 사람이 뭐라고 해도 자신이 갖고 있는 장점을 적극 발굴하라는 응원입니다. 타인의 존중과 부러움의 대상이 되도록 자신을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일과 행동을 많이 만들라는 부탁이기도 합니다.

ECHO는 잘 알려진 단어지만 몇 가지 단어를 합친 것입니다.



E는 Engaging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약혼을 했다는 뜻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함께 한다’는 의미입니다. 신입생은 선배와, 선배는 후배와, 교수는 학생과, 재학생은 졸업생과, 학생은 학부모와 동행한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C는 Communication이라는 단어에서 가져왔습니다. 누군가를 더 잘 이해하고, 더 공감하고, 무언가를 함께 하고자 할 때 우리는 소통을 합니다. 신체에 피가 돌아야 생명이 유지되는 것처럼 소통이 없으면 조직은 무너집니다. 학회 활동, MT, 집단 지성, 학회 참여 등 그 대상은 무엇이든 될 수 있습니다.

H는 Hosting의 약자입니다. 파티를 열거나 식사 자리를 마련할 때 ‘주인’으로서 모든 것을 관리하고 책임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저희 웹진 편집위원회가 주인이 되어 많은 분을 초대하는 자리를 마련한다는 ‘초대하기’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평소에 만나고 싶었던 분, 평소 궁금했던 주제에 대해 진솔한 인터뷰를 만날 수 있습니다.

O는 경계를 넘는다는 뜻을 가진 Outreaching의 첫글자입니다. 학과와 학교라는 좁은 울타리를 넘어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전공자라면 꼭 알아야 할 넓은 세상의 이야기를 담고자 합니다.

ECHO는 올림입니다. 확장기입니다. 당신이 자랑스러울 때 우리는 그 모습을 세상에 널리 알릴 것입니다. 당신이 고독하고 외로울 때 우리는 성탄절이나 석가탄신일의 종소리처럼 희망을 전할 것입니다. 당신이 낙담하고 미처 한발 더 내딛을 힘조차 없을 때 우리는 당신의 심장이 되어 대신 울릴 것입니다. ECHO는 또한 메아리입니다. 당신이 만드는 올림이 세상 끝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거듭 공명할 것입니다.



# letter from the echo, webzine

안녕하세요 편집자 정연주입니다.

첫 웹진 회의 때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우리의 방식으로 담아 소통해 보자”고 운을 뗐습니다.

그리하여 탄생한 웹진 이름은 ‘ECHO’입니다.

‘창간호에는 어떤 이야기를 담으면 좋을까?’ 하고 많은 고민을 가지고 수없이 회의를 했습니다.

웹진 편집진들 역시 넘치는 열정과 함께, 처음이라서 가질 수밖에 없는 부담감과 혹시 ‘부족한 점이 있으면 어찌지’ 하는 걱정 또한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신영복 선생님의 <처음처럼> 시를 알고 계신가요?

<처음처럼>

“처음으로 하늘을 나르는 새처럼  
처음으로 땅을 밟고 일어서는 새싹처럼  
우리는 하루가 저무는 저녁 무렵에도  
아침처럼 새벽처럼 처음처럼  
다시 새 날을 시작하고 있다.”

신영복 선생님은 처음처럼 희망을 잃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다같이 어깨동무하며 더불어 나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ECHO’ 창간호를 시작으로 정기적으로 나오게 될 웹진을 하늘을 나는 새의 용기와,  
씩씩한 새싹의 모습처럼 성장 하고자 합니다. ‘자신을 자랑스러워하며’ ‘우리들의 모습’ 그리고  
‘우리 주변의 모습’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는 우리의 울림이 멀리 퍼져가길 바라며 ‘ECHO’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정연주드림

---

# Engaging Communicating Hosting Outreaching

---

vol.1

총괄 편집장 김성해 Kim seong hae

정연주 Jeong yeon ju

Design

남민지 Nam min ji

이승민 Lee seung min

Editor

나중일 Na jung il

윤명은 Yune Meyoung Eun

윤유미 Yunyu mi

조은진 Jo eun jin

---

# 홍콩에서 인턴을 한다면?

정자윤, 천효진

# I. 홍콩 인턴십 : 정지윤

나는 현재 홍콩수요저널에서 인턴기자로 생활하고 있어. 내가 있는 홍콩수요저널은 매주 수요일마다 발간되는 주간지로 1995년도에 처음 발행되어 현재 21년 동안 홍콩 뉴스, 중국 뉴스, 한인사회 뉴스, 문화 기사 등을 제공하고 있는 한인 언론사야. 거기서 내가 맡은 업무는 한인사회 취재 및 수요저널 홈페이지 관리와 SNS 관리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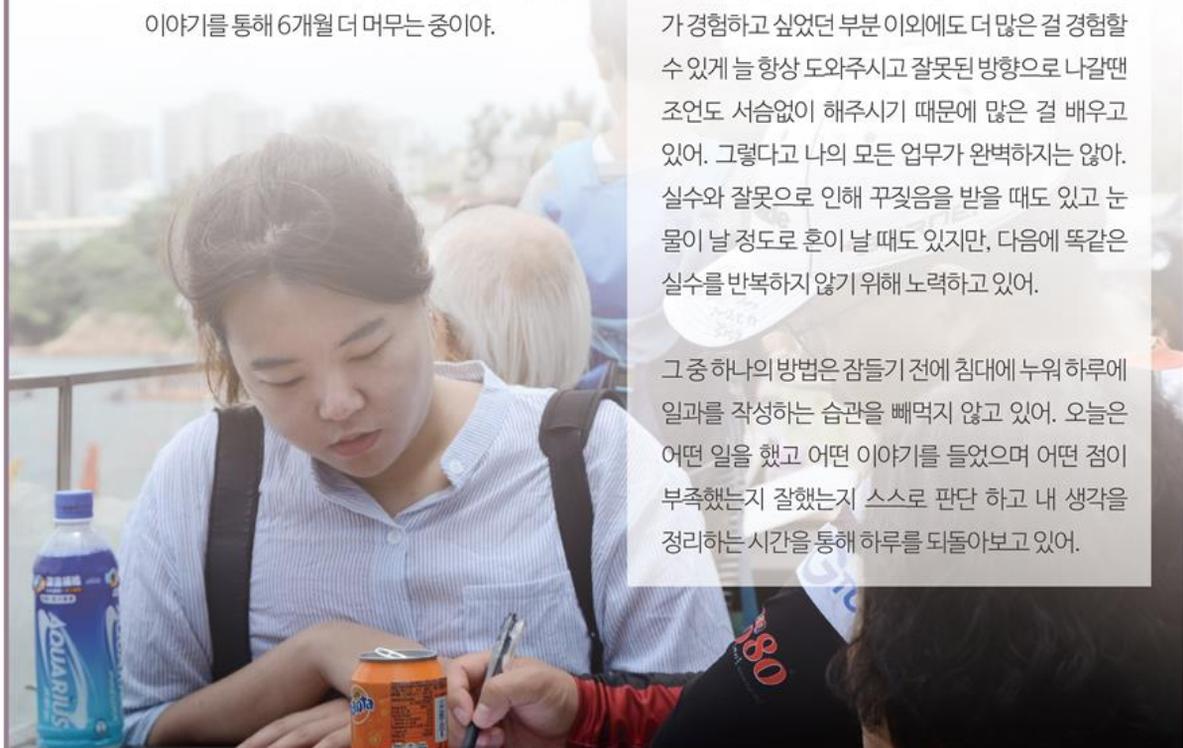
한국도 아닌 머나먼 타국에서 인턴을 하게 된 계기는 학교 프로그램인 홍콩한인상공회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면서였어. 이 인턴십 프로그램은 한국 대학생들에게 실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만들어진 프로그램으로 대구대 경북대 대가대 등 대구지역 학생들을 중심으로 시작해 현재는 전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모집하고 있어. 현재는 5기 친구들이 홍콩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고 있어. 매년 3월 9월 2번 모집하며 기간은 1월부터 6월 까지 7월부터 12월 까지 6개월 동안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어.

나는 4기로 1월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홍콩에서 머물고 있어. 원래 예정대로 라면 6월 말까지 일을 끝내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지만, 회사 측과의 이야기를 통해 6개월 더 머무는 중이야.

처음 홍콩에 도착했을 때 홍콩의 밤이 주는 화려한 불빛과 수많은 사람과 외국인들 사이에서 생활한다는 것이 설레고 행복했어. 그러나 악명을 자랑하는 홍콩의 비싼 집값과 물가로 인해 하루하루를 허덕이며 간신히 버텨 지내기도 했어. 또 나를 힘들게 했던 건 처음 일을 시작한 한 달 동안 나에게 아무런 일도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었어. 하루를 회사에서 멍하니 보내다 집으로 오면 도대체 여기에서 내가 무엇을 하는지 왜 내가 여기에 와있는지에 대한 의문과 자괴감으로 눈물을 흘린 날도 많았어. 그러다 편집장님께서 나에게 처음 한 달은 앞으로의 6개월을 홍콩 생활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빨리 적응할 수 있게 일하는 몸으로 바꾸라는 말씀을 하셨어. 그 뒤로 나는 아침에 일어나 회사에 출근하기까지, 출근해서부터 퇴근 시간까지, 퇴근 후의 시간, 주말 시간을 어떻게 하면 최상의 상태로 유지할 수 있을 까를 고민하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어.

그렇게 한 달이 흐르고 나에게 한인사회 취재와 홍콩 수요저널의 SNS 관리라는 업무가 맡겨졌고 최선을 다하기 위해 하루 하루 노력하는 중이야. 정말 감사하게도 홍콩수요저널의 편집장님과 기자님께서 내가 경험하고 싶었던 부분 이외에도 더 많은 걸 경험할 수 있게 늘 항상 도와주시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땐 조언도 서슴없이 해주시기 때문에 많은 걸 배우고 있어. 그렇다고 나의 모든 업무가 완벽하지는 않아. 실수와 잘못으로 인해 꾸짖음을 받을 때도 있고 눈물이 날 정도로 혼이 날 때도 있지만, 다음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그중 하나의 방법은 잠들기 전에 침대에 누워 하루에 일과를 작성하는 습관을 빼먹지 않고 있어. 오늘은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이야기를 들었으며 어떤 점이 부족했는지 잘했는지 스스로 판단 하고 내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통해 하루를 되돌아보고 있어.



## I. 홍콩 인턴쉽 : 정지윤



1년 정도를 홍콩에서 지내면서 나에게도 많은 변화가 있었어. 우선 나 스스로가 강해졌다는 걸 느껴. 홍콩에 오기 전까지 한번도 부모님의 곁을 떠나 살아보지 않았던 나는 스스로 무언가를 결정 하고 부딪히면서 내 인생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게 되었어. 또 처음 만나는 사람과 이야기하는 걸 힘들어하는 내가 취재를 통해 먼저 다가가는 방법을 배우기도 했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감을 얻었어.

현재까지 나의 홍콩행은 좋은 선택이었으며 남은 기간도 좋을 것이라 믿고 있어. 그러기 위해선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할 거야. 그러다 보면 좋은 기회도 좋은 인연도 내게 찾아올 거라 믿어. 이 글을 읽고 있는 신문방송학과 후배들도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어.

## II. 홍콩 인턴쉽 : 천호진

1년 전 이맘때 학교-기숙사, 기숙사-학교를 반복 하던 나는 학교생활에 흥미를 잃어갔다. 그러다 문득 홍콩 인턴십 모집공고를 발견했다. 아직 꿈을 정하지 못한 나에게 홍콩 인턴생활은 꿈을 구체화해줄 매 개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막연하게 써 내려간 자기소개서와 신청서가 상상뿐이었던 내 계획을 구체화시켜줬다.

상상처럼 일이 쉽게 풀리지는 않았다. 관광객이 아닌 인턴기자로 홍콩에 향하는 건데 홍콩에 대해 무지 했다. 그저 홍콩에 간다는 생각만 했지 내가 기자로서 홍콩에 대해 글을 써야 한다는 것은 인지하지 못했다. 정말 많이 혼났다. 홍콩 학교와 관련된 기사를 쓰는데 한국과 달리 홍콩은 중등과정을 8년 동안 하는 것도 몰랐다. 그런 나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한심스러웠다. 항상 즉흥적으로 일을 진행하고 별이던 자신에게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었다.

기사를 작성하기도 쉽지 않았다. 내 전공이 신문방송 학과이긴 하지만 기사를 직접 써본 적은 1학년 수업시간에 썼던 기사 서너 개가 다였다. 그런 내가 한국도 아닌 해외에서 번역 기사를 참고하며 어떻게 처음부터 잘할 수 있었겠는가. 자존감이 바닥 아니 지하 저 끝까지 떨어졌다. 회사 가기가 무서웠고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았다.

뭐든 하면 된다고 불품없었던 내 기사도 시간이 지나니 조금씩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하루 한 개의 기사도 제대로 못 써 혼나던 나는 금세 하루 세 개씩 기사를 썼다. 기본적인 기사를 쓰는 것부터 술술 풀리니 정말 재미있었다. 기사에 욕심도 생겨 '이런 내용을 넣으면 더 좋을 텐데', '이런 컨셉으로 기사를 쓰면 좀 더 재미있을 텐데', '이런 인터뷰가 있으면 더 좋을 텐데' 하며 나 혼자 고민하고 덧붙여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사를 써 나가기도 했다.

## II. 홍콩 인턴십 : 천효진

취재 나가는 것 역시 정말 재밌었다. 첫 취재로 갔던 글로벌어린이재단 신년행사 취재에서 된 기자분은 “새로 오신 기자분이시군요”라며 날 반겼다. 그때 괜히 정말 기자가 된 느낌이 들었다. 직접 현장에서 취재해 쓴 기사는 번역 기사를 쓰는 것보다 훨씬 재밌었다. 배우 이종석이 홍콩을 방문했을 땐 홍콩 현지기자들과 다 같이 취재하러 갔었다. 한인 행사가 아닌 큰 행사도 또 처음 접해 보는 것이라 떨렸다. TV에서만 보던 취재현장을 내가 기자의 자격으로 서 있다는 것 역시 신기했다.

기사 작성, 현장 취재 이외에도 홍콩에서 다양한 경험들을 했다. 홍콩 여행은 물론 마카오, 중국 주하이, 심천, 광저우까지 6개월 동안 정말 많이 돌아다닌 것 같다. 주 6일 일하는 내게 상이라도 주듯 매주 일요일이면 항상 함께 생활하는 언니들과 구경을 다녔다. 홍콩에서 안 가본 곳은 없다고 자부할 만큼. 또 해외에서 생활하다 보니 다양한 나라의 친구들을 많이 만났고 그들의 문화도 간접적으로 접할 기회가 많았다.

홍콩을 다녀온 뒤 나는 가족의 소중함에 대해 가장 많이 느낀 것 같다. 떨어져 봐야 안다고 홍콩에서 부모님에 대한 감사함, 미안함, 소중함 등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많은 감정을 느꼈다. 지금은 조금이라도 더 잘해드려야겠다는 생각에 착한 딸이 되 고자 노력 중이다.

또한, 나는 정말 우물 안의 개구리였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학교에 다닐 땐 비슷한 또래에 비슷한 스펙과 능력을 갖춘 친구들과 있었는데 사회에 나가보니 너무도 훌륭하고 맛있는 사람들이 많았다. 언어는 어렵다고 생각하며 꺼리는 나와는 달리 비슷한 또래인데도 5개 국어까지 가능한 사람도 있었다. 또 자신의 꿈을 위해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도 많았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게으르게 살면 안 되겠구나, 늦기 전에 나도 저들처럼 맛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지금 한층 더 성장한 내가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홍콩에 있으면서 학과 동기와 선후배들에게 홍콩생활 어떠한 질문을 엄청 많이 받았다. 사실 무조건 추천해주는 힘들었다. 왜냐하면, 홍콩은 한국보다 물가도 비싸고 주거환경도 열악해 꽤 힘든 생활을 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난 돈이 없어서 분위기 좋은 식당, 카페 한번 가는 것도 겁을 냈었다. 그래도 돌아와보면 그것들 역시 나를 성장시켜주는 원동력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정말 힘들었지만 힘든 만큼 많이 배웠고 거지같이 살았지만, 그것만큼 기억나는 것도 없다. 한국에서 보고 싶은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만큼 홍콩에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사귀었다. 항상 선택은 자신의 몫이다. 후회하는 것도 만족하는 것도.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해 많은 경험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이 글이 해외인턴십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선택하는 데 있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







# 理性으로 비판하더라도 意志로 낙관하라”

나중일

가도 가도 끝없는 수평선과 청명한 하늘이 수놓은 구름 아래에서 고요하게 숨 쉬는 바닷바람이 온몸을 적셨습니다. 수면 위 부서지는 햇살을 힘차게 가르는 군함에서 머리와 가슴으로 품었던 아름다움은 지금도 종종 꺼내어 봅니다. 별들이 밤하늘을 지배한 모습을 갑판 위에 누워서 감상하다 보면 우주를 맴돌다 잠시 지구로 찾아온 유성이 바다에 떨어졌던 그 모습도 잊을 수가 없네요. 별의 빛을 눈동자에 머금은 순간 경이로운 아름다움이 제 눈을 훑치고 갔는지도 모르겠네요. 해군 수병으로 복무했기에 간직할 수 있었던 하늘이 주신 선물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선물을 여러분과 공유하게 되어 아주 기쁘네요.

사랑·빛·자유 의 정문을 통과하고 걸어온 복학 후 첫 등굣길은 묘한 낯센과 반가움이 교차하더군요. 사실 걱정이 더 앞섰었지요. 표현과 자유가 제한된 곳에서 만들어진 옷을 벗고 지성인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했으니깐 말이죠. 수업에선 간단한 생각을 말로 하기도 어렵더군요. 교수님의 강의를 경청하려고 몸부림쳐도 정체를 전자파가 방해했습니다. 탄짓과 탄생각을 멈추는 데는 한 달 정도 걸렸습니다. 교수님의 세심한 배려와 함께 복학한 동기들과 고민을 나누는 덕분에 도움이 되었네요. 하진홍 교수님께서 복학한 학생들을 모아 식사를 대접해주시더라고요. 식사를 대접해주시는 날도 뛰어다니시며 학과업무를 하시더라고요. 바쁜 시간에도 학생들과 소통하려고 하시는 모습에 감동도 함께 받았네요. 그러므로 제자로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보답을 드려야 하겠지요. 또 교수님들의 선택이 있었기에 입학할 수 있었으니까요. 학과의 시스템이 크게 향상되었더군요. 열띤 토론을 할 수 있는 강의실과 오디오 부스까지요. 교수님들께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리고 싶어요. 제자들을 위해 아낌없이 힘써주시는 부분과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도 함께 감사드립니다. 교수님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따뜻함이 밀려와요. 학생들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이지요.

세계 가장 큰 힘은 꿈이었습니다.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꿈을 눈 동자에 품고 있었지요. 행복할 때나 힘들거나 슬플 때 항상 함께했던 게 꿈이었죠. 극빈자의 목소리를 전달 하는 아나운서가 꿈입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취약 계층 그리고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각별히 배려하고 그저 그들의 절박한 요구만 해결해 주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인간적, 문화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신문방송학을 전공하면서 깊은 고민도 풀고 싶어요. 노숙자의 죽음은 기사화되지 않는데, 주가는 고작 2포인트만 떨어져도 기사거리가 되는 오늘날을 말입니다.





거슬러 올라가 고등학생 때, 여느 때와 같은 하굣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상가 앞에서 쪼그려 앉아 소쿠리에 나물을 담고 팔던 할머니가 길 끝 편에서 사이렌 소리를 듣고선 도망을 가시는 겁니다. 시청에서 불법 노점상을 단속하는 차량 이더군요. 그리고 단속 차량 스피커에서 흘러나온 메시지가 제 꿈을 만들어 주었죠. “또 다시 장사하면 모두 몰수합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매스컴에서 보던 장면을 실제로 보니 주먹을 쥐게 되더군요. 시장에서 장사하지 않은 할머니의 잘못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른 아침에 자기 몸보다 크고 무거운 짐을 메고 시장이 아닌 거리로 나오는 이유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날,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본주의에 대해 검색했었죠. 제가 존경하는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청년들에게 시류에 맞서 행하고, 대세를 거슬러 살도록 하며 오늘날의 경제적·문화적 환경과 쾌락주의적이고 소비주의적인 세대에 함께 맞서라고 요청했었습니다.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문방송학을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늘 문제 제기와 문제의식을 연마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문제에 대해 비판적이지만, 이성적이고 감성적입니다. 물론 주변 사람들은 제가 모든 부분에 이성적이라고 오히려 비판합니다. 이 때문에 실패한 일도 많았고요. 어렵게 들어간 학교 홍보대사나 정부 부처 대학생 기자도 그만뒀었죠. 힘없는 사람들을 내치는 곳에서 일하는 건 도저히 못 하겠더라고요. 그건 제 꿈을 거스르는 행동이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KBS 대구방송총국에서 시청자리포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주신 소중한 기회이고 제 위치에서 작은 곳을 더 세밀하게 볼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나와 다른 대학생들의 생각도 몹시 궁금하고, 너무 멀리 있는 것보다는 바로 가까이 있는 문제들을 들춰내는 게 지금의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취재를 하다 보면 오히려 한번에 잘 이루어지는 일보다는 힘든 일들이 더 값진 것 같아요. 잘 이루어진 일은 금방 잊혀 지는데, 힘든 일은 오래 기억되잖아요. 거기서 얻는 건 더 값지고요. 당연히 함께 움직이는 동기, 후배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지요. 공동체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낍니다.

아직은 땀내기에 갈 길이 멀었지만, 따뜻한 사람이면서 잠들지 않고 머리와 가슴이 깨어있도록 나아가겠습니다. 똑바로 사물을 바라볼 수 없다면, 눈동자에 빛을 비출 수도 없죠. 발견하는 겁니다. 내 눈으로. 남은 2년 동안 많은 것을 눈동자에 담아두고 싶네요. 대학생의 아름답고 따뜻한 눈이 어른이 되었을 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말이지요. 모두의 평화를 빕니다.

# Harold Lasswell

해럴드 라스웰

현대 커뮤니케이션학의 정립에 크게 기여한  
윌버 슈람 (Wilbur Schramm)은 4명의 언론 학자를 지목했습니다.

해럴드 라스웰 (Harold Lasswell), 폴 라자스펠드 (Paul F. Lazarsfeld),  
칼 호블랜드 (Karl Hovland), 커트 레윈 (Curt Lewin)입니다.

이들이 언급한 언론학 4대 학자를 가리켜 **‘언론학의 4대 비조’**  
라고 합니다. 네 명의 학자 모두 윌버 슈람과 동시대를  
살아가며 커뮤니케이션학에 기여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윌버 슈람이 인정한 4대 언론학자 중  
그 첫 번째 해럴드 라스웰의 스토리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초록 (抄錄)**

해럴드 라스웰은 시카고학파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학자, 정치사회과학자 그리고 커뮤니케이션학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정치학의 행태주의 이론을 개척했을 뿐 아니라 다양한 연구로 커뮤니케이션 학문에 이바지했습니다. 특히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설명하는 중요한 이론인 'S-M-C-R-E' 모델을 제시한 학자로 유명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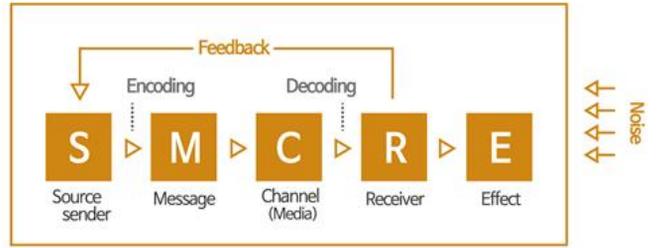
**STORY**

정치학에선 라스웰의 생애를 시카고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1926-1938), 동부이주와 방황 (1938-1946), 예일대 법대 교수 (1946-1970) 등 크게 세 개의 시기로 나눕니다. 1902년 2월 13일에 태어나 1978년 12월 18일 별세할 때까지 라스웰은 끊임없이 교편을 잡고 많은 저서를 펴냈습니다. 그의 생애를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선 다양한 이론과 사상을 알아야 합니다. 라스웰의 생애를 모두 훑어보는 것이 좋겠지만, 언론학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에 중점을 두고 그의 인생을 살펴볼 겁니다.

해럴드 라스웰은 미국 일리노이주 도널슨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장로교 목사였고 어머니는 학교 교사로 일했습니다. 당시 라스웰 가족은 소도시의 귀족층에 속했습니다. 라스웰은 책을 귀하게 여기는 가정에서 철학사와 정신분석학을 접하며 어린 독서광이 되었습니다. 또 프로이트이론을 잘 아는 의사인 삼촌의 영향을 받아 종교적, 지적 가치와 정치행태의 심리분석에 경도되는 지적 추구자로 성장했습니다.

라스웰은 1918년 16세의 나이로 시카고대학교에 입학하고 1922년 20세의 나이로 경제학 학위를 받고 졸업합니다. 이후 1923, 1924, 1925년 제네바, 파리, 베를린에서 학문을 닦았습니다. 라스웰은 1926년 다시 시카고대학교로 돌아와 <제1차 세계대전에서의 선전 기법(Propaganda Technique in the World War)>이라는 논문으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합니다. 제1차 세계대전을 통해 정부가 사용한 커뮤니케이션과 조작 과정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한 것입니다. 이때 매스커뮤니케이션과 조작에서 상징의 중요성을 소개하고 선전, 상징,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분석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미디어-수용자 효과에 대한 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스웰은 1946년부터 예일대 법대 교수로 생활하며 2년 후 커뮤니케이션 연구 사상 가장 유명한 구절이 실린 논문인 <사회 내 커뮤니케이션의 구조와 기능(The structure and function of communication in society)>을 발표합니다. 그는 이 논문



에서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설명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 (who) 무엇을(says what) 어떤 채널을 통해(in which channel) 누구에게 말하여(to whom)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가(with what effect)” 이것이 바로 커뮤니케이션 모델의 효시인 'S-M-C-R-E' 모델입니다.

라스웰 공식 (Lasswell Formula) 이라고도 불리는 'S-M-C-R-E' 모델은 고대 그리스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서 <수사학(The Rhetoric)>에서 제시한 커뮤니케이션 모델과 비슷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커뮤니케이션의 기본요소를 화자 (speaker), 내용(speech), 청중 (audience), 효과(effect)라고 말하며 커뮤니케이션을 청중이 아닌 화자의 측면에서 바라봤습니다. 고대 그리스는 웅변술을 중시했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을 언어를 통한 설득 행위로 생각했습니다. 즉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선형적이고 일방향의 것으로 간주한 것입니다. 라스웰도 마찬가지로 커뮤니케이션을 일방적인 과정으로 이해하며 개인은 메시지를 통해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봤습니다. 이 고전적 커뮤니케이션 모델은 나중에 소음과 역동성 그리고 복잡성 등이 추가로 언급되어 발전하게 됩니다.

라스웰은 이처럼 커뮤니케이션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주로 실천 쪽보다는 사교의 측면에 이바지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가 커뮤니케이션 학문에 끼친 영향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S-M-C-R-E 모델 구축에 이바지하여 커뮤니케이션 학문이 정립되는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둘째, <선전, 커뮤니케이션, 여론 (Propaganda, Communication, and Public Opinion)>이란 논문으로 선전 분야의 커뮤니케이션 영역에 이바지했습니다. 셋째, 앞서 언급한 <사회 내 커뮤니케이션의 구조와 기능>이란 논문을 통해 커뮤니케이션에는 환경 감시 기능 (surveillance), 관계설정 기능 (correlation), 사회화 기능 (socialization)의 세 가지 사회적 기능이 있다고 말하며 커뮤니케이션의 정치적 기능을 개념화했습니다.

지금까지 간단히 해럴드 라스웰의 생애, 업적, 사상과 학문 그리고 라스웰이 커뮤니케이션에 미친 영향을 살펴봤습니다.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도 <세계 역사에 있어서 선전과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책을 3권 완성한 라스웰. 과연 언론학의 4대 비조라 불릴만한 전설적인 학자입니다.

(참고문헌)  
 양영호 (커뮤니케이션을 공부하는 당신을 위하여), 커뮤니케이션박스 / 송희준, 『라스웰 학문세계의 재발견』, 송인기, (커뮤니케이션학, 102)의 선구자, 커뮤니케이션박스 / 이계영, (커뮤니케이션과 미디어), 시간의물레

# 2016 학술제 x 영상제

## 학술제와 영상제의기가막힐 컬래버레이션

계절을 넘 없이 이어온 학생회 활동의 끝맺음인 학술제가 올해 처음 시작하는 영상제와 같이 진행된다. 시작과 끝이 아닌, 끝과 시작이라는 절묘한 컬래버레이션을 궁금해하는 학우들을 위해 준비한 인터뷰다. 학술제를 기획하는 학생회장 12 이영운 학우와 영상제 기획하는 12 박철우 학우를 만나 대화를 나눠봤다.



올해 처음으로 학술영상제가 개최되는데, 학술제와 영화제를 같이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철우 신문방송학과 특성상 외부행사가 많다보니 교내에서 학우들과 즐길만한 문화거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기존에 참가했던 외부행사인 부산국제영화제보다는 교내에서 할 수 있는 우리만의 영상제를 기획했어요. 학술제는 교내에서 진행되는 게 맞죠?

영운 네 기존하고 똑같이 교내에서 진행될 것 같아요.

철우 학술제는 기존과 같이 진행될 거구요. 영상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로 학우들이 수업시간에 만든 작품이 문헌다는 게 아쉬웠어요. 굉장히 좋은 작품들이 많은데 말이죠. 그래서 프로감독들처럼 학생들이 만든 영화로 상영회를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 생각했어요. 또 영화제의 본래 취지처럼 학우들이 원하는 최신 영화나 다시 보고 싶은 영화를 틀어 함께 보고 즐길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자는 생각으로 영상제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학술영상제에 대한 기본적인 날짜와 일정이 궁금해지는데요.



**영운** 학술영상제는 11월 4일 금요일 저녁 7시부터 11월 5일 아침 7시까지 진행될 예정이에요. 학술제는 장소가 아직 미정이지만, 사과대 구강당이나 신문방송학과 1307 스튜디오에서 진행될 예정이에요. 영상제도 학술제가 끝나면 바로 1307, 1304, 1310 강의실에서 진행되고요.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두 시간 정도 학술제를 진행한 뒤,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영상제가 진행될 예정이에요.

구체적으로 기획된 프로그램이 있는지 얘기를 듣고 싶어요.

**영운** 학술제는 매년 실시하고 있는 1학년 연극을 위주로 진행할 예정이에요. 또한 우리 학과의 자랑인 랩실과 MC+, 그리고 올해 처음 발간하는 웹진을 따로 소개할 예정이고요. 지루할 수 있으니 소소한 경품 추첨이나 다양한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어요. 프로그램 안의 세부적인 것은 차차 준비하고 있어요.

**철우** 영상제는 첫 번째로 크레센도에서 진행하는 아이디어 공모전과 영상 작품 공모를 받을 예정이에요. 공모받은 아이디어 작품들과 영상 작품들은 현장 투표를 통해 상품을 주려고 계획 중이에요. 두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공수업에서 제작한 영상들을 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또 영화제에서는 영화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GV 행사가 있어요. 가능하다면 그런 행사를 영상제때 준비해볼까 해요. 현재 아메바에서 영화 두 편을 제작중이라 영상제때 함께 보고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9월 마지막 주부터 공모 받은 영화들을 시간대별로 상영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구체적인 프로그램 틀은 구성했지만 영화 공모를 받고 세부 사항을 짜야 하기 때문에 저희도 준비 단계에 있어요.

아메바에서 제작하고 있는 영화가 두 편 있다고 하셨는데, GV의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철우** 제작 준비 중이에요. <대학을 품다>라는 가제의 영화 한 편은 재학생과 신입생이 멘토 멘티가 되어 작업하는데,

재학생의 조언을 받아 신입생이 시나리오와 촬영, 편집 등 모든 것을 작업해요. 두 번째로는 <레디 액션>이라고 현재 아메바 랩장인 임지윤 선배를 필두로 준비 중인 영화예요. 이 영화는 학술영상제 일주일 후에 있을 곤학술제를 대비해서 작업 중인데, 이것 역시 스토리 작업 단계예요. 만약 학술제까지 작업이 끝난다면 저녁 9시 반부터 12시 사이에 들어갈 것 같아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러 문제로 상영을 못 하게 된다면 나중에 따로 보여드리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 같아요.

학술영상제를 준비하면서 특별히 중점을 두고 신경을 쓴 부분은 뭔가요?

**영운** 기존의 학술제는 매년 진행해 왔기 때문에 크게 학술제, 영상제 안에서 크게 준비한 건 없어요. 다만 올해 처음으로 학술제와 영상제 두 개를 함께 진행해야 해서 프로그램이 매끄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안의 프로그램이죠. 학우 분들이 왔을 때 정말 재미있었다고 말할 정도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이 학술제가 내년, 내후년에도 진행될 수 있으니까요. 가장 중요한 건 프로그램의 질이라고 생각해요.

**철우** 영상제는 올해 처음이잖아요.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즐겨주실 건지도 걱정이고, 저희가 준비한 만큼 진행이 잘 될지도 걱정이에요. 저희가 좋은 표본이 될 수 있도록 전체적인 프로그램 구성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많이 신경 썼어요.

올해 처음으로 진행되는 학술영상제에 관심 가질 학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영운** 학술제가 신문방송학과와 크레센도의 큰 행사 중 하나고, 1년을 마무리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프로그램 구성과 진행은 학생회와 아메바가 하는 거지만 이 학술영상제를 완성시킬 수 있는 건 참여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게다가 내년에 학과명이 바뀌는데 신문방송학과로서의 마지막 학술제인 만큼 프로그램을 재밌고 유익하게 만들 테니까 많이들 참여하셔서 자리 빛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철우** 학생회나 아메바나, 크레센도 같은 경우에도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보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이영운학우의 말처럼 학우 분들이 얼마나 참여하느냐에 따라 학술영상제의 분위기와 평가가 나뉠 것 같아요. 저희도 현장투표나 의견을 받아야 하니까 학우 분들의 도움이 절실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참여를 얼마나 해주시냐에 따라 좀 더 멋지고 좋은 학술영상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크리에이티브의 선두주자, 창의적인 광고인을 꿈꾸다.

## 2016부산국제광고제에 참석한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지난 8월 25일 올해로 9회째를 맞이하는 2016 부산국제광고제가 화려하게 개막했다. 행사는 25일에서 27일까지 열렸으며 올해는 'Break' 라는 테마로 기존의 형식을 깨고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지는 광고계 변화를 반영하여 다양한 전시와 강연들이 진행되었다.

이번 2016 부산국제광고제에 참여한 16 김정기 학우와 15 이주운 학우, 12 박철우 학우에게 광고제에 다녀온 소감과 네트워크 파티 후기 등을 인터뷰했다.



첫 번째로 2016부산국제광고제에 처음 참석한 김정기(16 학번) 학우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번에 처음 2016 부산국제광고제 행사에 참석하게 된 계기는?

처음 1학기 수업을 듣기 전까지는 광고에 별다른 관심이 없었다. 사실 관심이 없기보단 광고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 하지만 1학기 광고홍보의 세계라는 수업을 들으면서 광고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게 되었다. '아는 만큼 보인다.' 는 말처럼 수업을 들은 이후 전보다 광고에 대해 자세히 이해할 수 있었고, 광고에 대한 관심도 생겼다. 그래서 광고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부산국제 광고제 행사에 참여하기로 마음먹었다.

전시물이나 강연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있다면?

가장 인상 깊었던 전시물은 VR 체험 부스였다. 최근 가상현실을 실현한 VR이 이슈인데 VR기기가 아직 개발 단계이고 우리 일상에 보편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평소에 이론으로만 접해봤지 실제로 체험해 볼 기회가 없었다. 부산국제광고제에선 롤러코스터나 야구, 탁구 등 다양한 VR 체험 존이 많았고 이번 기회를 통해 VR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가장 인상 깊었다.

처음 부산국제광고제에 참석한 소감은?

전반적인 소감은 아쉬웠다. 생각보다 광고제의 규모가 작아 전시물이 많이 없었다고 생각한다. 광고가 주된 목적이다 보니 작은 규모만큼이나 광고에 관련된 체험과 홍보 부스가 적었다.

마지막으로 부산국제광고제에 참석하지 못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광고를 이론이 아닌 몸소 느껴보고 싶다면 광고제에 참석해 체험해보기를 권한다. 현재 광고의 트렌드 진행과 변화 등 전반적인 광고 흐름을 알 수 있다. 또 부스 안쪽에 많은 강사의 세미나가 준비되어있어서 미래의 광고인이 되기를 꿈꾼다면 한 번쯤 둘러보는 것을 추천한다.

두 번째로 부산국제광고제에 참석한 적이 있던 이주윤(15학번) 학우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번 부산국제광고제 참석을 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광고 분야에 관심이 많고 다양한 전시물과 세미나를 체험할 좋은 기회라서 참석하게 되었다.

**작년과는 비교했을 때 부산국제광고제의 달라진 점이나 바뀐 점이 있다면?**

행사장의 규모가 작년보다 협소했고 전시프로그램도 적어진 느낌이었다. 하지만 체험 형식의 전시프로그램은 비교적 증가하였다.

**가장 기억에 남는 전시물이나 강연이 있다면 무엇이고 그 이유는?**

KT의 GiGA IoT가 기억에 남는다. 행사장 내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즐기며 체험했고, 그 프로그램으로 인하여 GiGA IoT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었다. 현재 어떤 기술이 발달되어 있는지 또 그러한 기술이 앞으로 우리의 삶에 어떻게 녹아들게 될지 체험을 통해 알 수 있어서 더욱 흥미로웠다.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부산국제광고제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참석했다. 그렇기 때문에 세미나를 할 때 동시통역이 이뤄졌는데 아무래도 실시간으로 통역하다 보니 듣기에 불편하고 어려운 점이 있었다. 개인적으로 '캔디크러쉬' 게임을 개발한 회사의 세미나를 들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강의를 들을 때 조금 어려움을 겪었다.

**참석한 소감과 함께 이번 부산국제광고제에 참석하지 못한 미디어커뮤니케이션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광고에 관심이 있다면 가보는 것을 추천한다. 규모가 커서 수많은 광고를 볼 수 있는 것은 물론, 다양한 특강과 체험 활동도 준비되어 있다. 또 광고의 딱딱하고 무거운 면만 다루는 행사가 아니므로 평소 광고에 관심이 없거나 광고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라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행사다. 매년 하는 행사이므로 올해 아쉽게 놓쳤더라도 내년에는 꼭 가볼 것을 권한다.



마지막으로 2016 부산국제광고제에 참석하고 그 후에 네트워크 파티에 참석한 박철우(12학번) 학우를 인터뷰했다.

이번 부산국제광고제를 참여한 계기가 있다면?

전문가들이 어떤 생각으로 광고를 만드는지 그리고 여러 작품을 현장에서 보고 싶다는 생각이 컸던 거 같다. 솔직하게 말하면 광고에 대해서는 그다지 잘 알고 있는 편이 아니다. 작년년부터 페이스북, 유튜브 등으로 광고 영상을 찾아보며 인상적인 것들은 스크랩하고 있는데 이런 영상들을 보면

‘어떻게 만들었을까?’나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라고 감탄할 때가 정말 많다. 개인적으로 영상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겠지? (웃음)

이번 부산국제광고제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전시물이나 강연이 있다면?

TBWA 강연이 끝나고 시디즈 의자 광고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왔었는데 답변이 인상적이었다. 나도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기획할 때 특별한 무언가를 만들어 내려는 경향이 강하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무심하게 지나치는 가장 기본적인 특징들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최초’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면 효과가 배가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광고제에 함께 간 순환(12학번) 학우와 함께 행사장을 돌아다녔는데, 이 강연은 꼭 들어야 한다고 했다. 좋은 강연을 처음부터 못 들은 것이 정말 아쉬웠다.

올해 네트워크 파티에서 가장 기억에 남거나 인상 깊었던 일이 있다면?

외국에서 파티한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오픈된 분위기가 인상적이었다. 시정뉴스 촬영 때문에 몇몇 행사장을 가봤었는데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다. 조용한 분위기에서 격식을 가지고 진행되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술잔을 들고 옆에



사람과 이야기하거나 한쪽에서 음악과 쇼를 즐기는 자유로운 분위기가 좋았다. 한 번은 공연을 보고 자리에 왔는데, 어떤 외국인분이 우리 자리에 앉아 있었다. 정말 부족한 영어 실력으로 몇 마디 나누고 그분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고 헤어졌는데 다음날 어워드에 상을 받으러 나오셔서 많이 놀랐다.

이번 부산국제광고제에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있다면?

크게 두 가지 정도인 것 같다. 행사장에서는 작년보다 확대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래도 아직 볼거리들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출입 제한이 있는 강연들이 있어서 아쉬웠다. 하나는 어워드 현장을 촬영할 때였다. 행사장이 좁은 편인 데다가 현장 중계를 해서 중계용 카메라 말고는 촬영이 정말 힘들게 되어 있었다. 중계할 때는 그 카메라 화각 안을 침범하지 않는 것이 일종의 예의다. 그래서 몇몇 행사장은 기자들이 촬영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두기도 한다. 하지만 여기서 충분한 중계 공간도 없었고 테이블에 사람이 둘러앉으면 그 사이로 지나가기도 쉽지 않았다. 사실 우리처럼 티켓을 구매해서 애프터 현장에 참여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물론 그분들이 늦게 오셔서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참석하시는 분들에게도 자리가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는 아쉬운 부분이었다.

참석한 소감과 함께 이번 부산국제광고제에 참석하지 못한 미디어커뮤니케이션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부산국제광고제에 참석할 때는 애프터 파티까지 가게 되리라고 생각도 하지 못했다. 애프터 파티까지 참여한 덕분에 더 많이 보고 느낄 수 있던 시간이었다. 이번에 참석하지 못한 학우들은 너무 아쉬워하지 말고 내년에 참가해 행사를 즐겼으면 좋겠다.



# 학생회장의 여러 순간들

## 학생회장에게 물어본 2016년

벌써 2016년도 2학기다. 올해 2월 말 OT부터 곧 있을 학술영상제까지, 모든 순간에는 학생회장이 함께했다. 1학기부터 학과 내의 고된 일을 도맡아 하는 LUV학생회 학생회장 이영운 학우와 솔직한 대화를 나눠봤다.

일단 많은 분이 아시겠지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6학년도 LUV학생회 학생회장 12학년 이영운입니다.

1학기 때부터 학과를 위해 열심히 일해 오셨는데, 그동안 해온 일들의 총망라해 점수를 매기자면 얼마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점수를 매긴 이유는요?

10점 만점으로 생각한다면 3점 이하로 주고 싶어요. 처음 학회장을 한다고 했을 때의 마음가짐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한 것 같거든요. 학우들을 잘 통솔하고, 재밌게 학과 행사를 진행해 보는 등 학우들에게 학과 생활의 재미를 느끼게 해주고 싶었어요. 또한, 저 자신도 후회 없는 1년을 보냈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돌이켜보니 후회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열심히 했다고 자신했지만, 후회가 남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다른 학우 분들이 평가했을 때 3점보다 밑만 아니면 괜찮았다고 생각하고 싶네요. (웃음)

만약에 1학기로 돌아간다면 자신과 같이해온 집행부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정말 고맙죠. 부족한 저 따라와서 고생만 시킨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늘 미안하고 감사한 마음만 듭니다. 물론 학회장 입장에서 부족한 부분이 보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지난 1년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절 많이 도와준 친구들이기에 고맙다는 말 밖에는 전할 말이 없네요. 덕분에 너무 즐거웠고 행복했어요.

앞으로 3개월 정도 남은 2학기 학과행사의 일정은?

대구 경북권 내 언론·방송 관련 학과가 모여 친목 도모를 계기로 9월 25일 곧 체육대회와 11월 20일 곧 학술제를 개최해요. 곧 체육대회는 여러 종목을 하던 작년과 달리 풋살 종목만을 토너먼트 형식으로 진행한 뒤 최종 우승팀을 결정지어요. 곧 학술제는 학과마다 자랑할 만한 콘텐츠(영상, 광고, 사진 등)를 가져와 상영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좋은

예정이에요. 서로의 작품을 보며 대화하는 자리가 각 학과에 좋은 피드백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그리고 11월 4일 학술제가 열립니다. 학술제는 매년 하는 신문방송학과의 가장 큰 행사인데요. 올해는 처음 개최하는 영상제와 합쳐 학술영상제로 진행하게 됐어요. 학우들이 직접 만든 작품을 상영하고 수상하는 자리도 마련했어요. 그래서 이전의 학술제와는 또 다른 볼거리와 즐거움을 제공할 것 같아요. 또 학술영상제동안 자유로운 분위기의 파티도 준비되어있으니 많이 기대해주세요.

11월 24일부터 26일까지는 집단지성이 있어요. 관심 분야가 같은 사람들끼리 팀을 만들어 직접 해당 회사와 컨택해요. 그리고 방문해서 그 분야의 현장 실무 능력을 배울 수 있는 자리예요. 학교에서 배우지 못하는 현장 실무를 배울 수 있기에 그 가치가 더 높다고 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11월 21일 17학년도 학회장을 뽑는 17학년도 학회장 선거가 있어요. 기회는 언제든지 있으니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2학기를 같이 보낼 학과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주세요.

제가 학회장으로서 바라는 건, 아마 역대 학회장이셨던 분들 모두가 바라는 거라고 생각해요. 학우 분들이 학과생활에 재미를 붙이고 열심히 참여하는 거죠. 제가 1학년 때 학과생활을 하며 지나쳤던 점들이 학회장을 하면서 많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1학년 때만 해도 학과생활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 제가 학과생활에 관심을 가지고 즐기다 보니 학회장이라는 자리까지 오게 됐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후회 없는 선택을 했다고 생각해요. 학교 안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헛되이 생각하지 않고, 꿈을 향해 열심히 노력한다면 분명 후회 없는 학교생활을 보낼 거라고 생각해요. 나아가 나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싶어요. 남은 16학년도 다들 즐겁게 학과 생활 보내시면 좋겠어요. 1년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 무작정 떠나본 유럽여행

여행은 새로운 경험을 통해 안정과 여유를 주는 회복제 같은 존재입니다. 매일 반복되고 질 세 없는 일상 속에서, 여행은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학년 2학기가 시작되기 전, 인생에서의 마지막 방학이 될지도 모르는 이번 여름! 저는 저와 같은 처지이자 룸메이트인 박은규 학우와 21일간의 일정으로 '유럽 3개국 (이탈리아 / 프랑스 / 스페인) 무계획 여행' 을 다녀왔습니다.

여행을 갈 때 꼼꼼하게 일정을 체크하면서 알찬 여행을 하는 것도 좋지만 무작정 떠나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을 맞이하는 것도 좋은 경험이 아닐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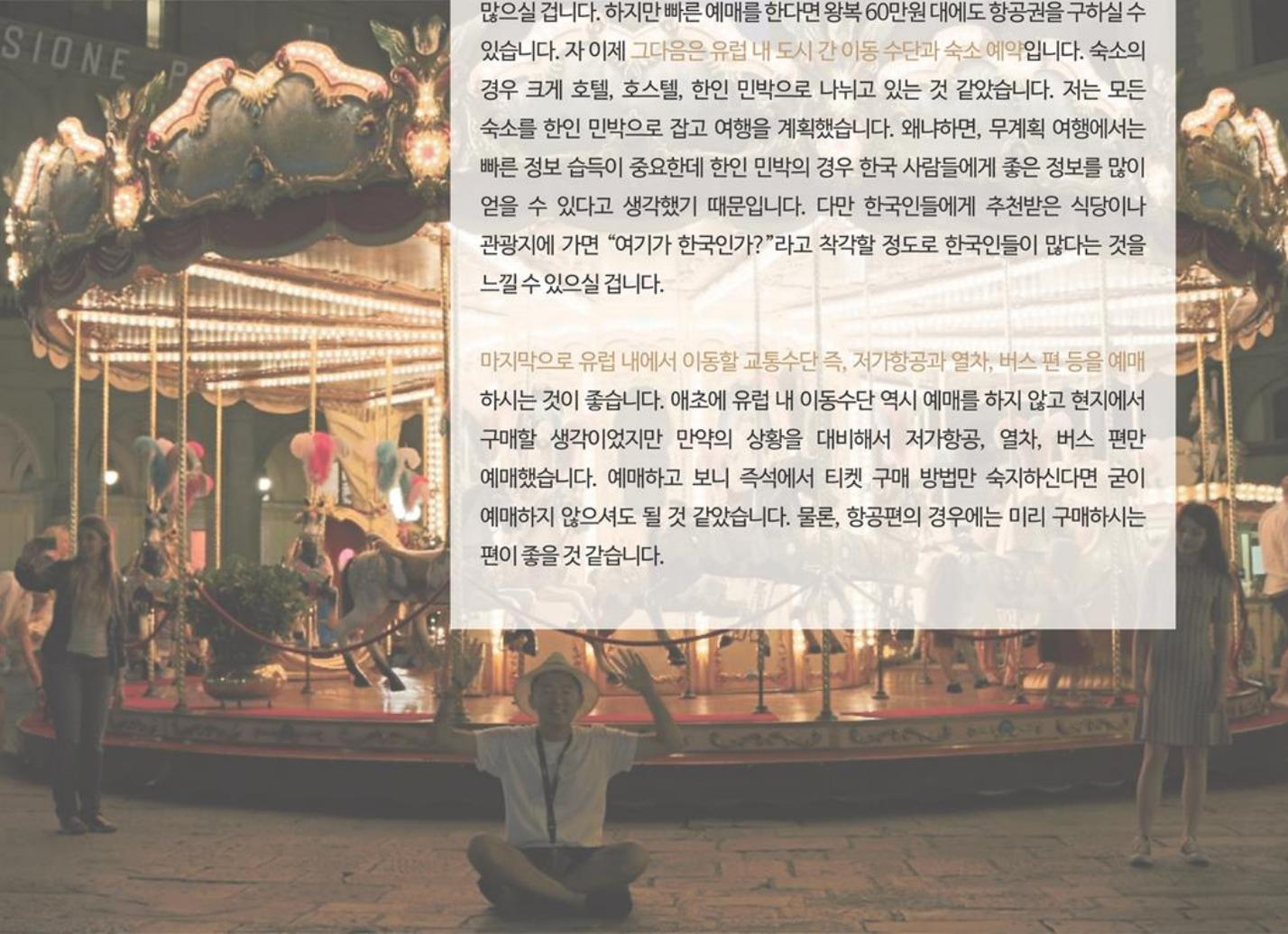
## 01 여행계획: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 말라

일정을 먼저 계획합니다. 이때가 가장 설레기도 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여행계획을 수립할때, 한정된 시간과 예산 속에서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욕심을 부리면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욕심은 모든 스트레스의 근원! 여행을 계획하는 학우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꼭 조언해주고 싶습니다.

유럽여행의 첫 준비는 항공권예매! 대체로 항공료에 부담을 느끼는 여행객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빠른 예매를 한다면 왕복 60만원 대에도 항공권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다음은 유럽 내 도시 간 이동 수단과 숙소 예약입니다. 숙소의 경우 크게 호텔, 호스텔, 한인 민박으로 나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모든 숙소를 한인 민박으로 잡고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왜냐하면, 무계획 여행에서는 빠른 정보 습득이 중요한데 한인 민박의 경우 한국 사람들에게 좋은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국인들에게 추천받은 식당이나 관광지에 가면 "여기가 한국인가?"라고 착각할 정도로 한국인들이 많다는 것을 느낄 수 있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유럽 내에서 이동할 교통수단 즉, 저가항공과 열차, 버스 편 등을 예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애초에 유럽 내 이동수단 역시 예매를 하지 않고 현지에서 구매할 생각이었지만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서 저가항공, 열차, 버스 편만 예매했습니다. 예매하고 보니 즉석에서 티켓 구매 방법만 숙지하신다면 굳이 예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았습니다. 물론, 항공편의 경우에는 미리 구매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정서



## 02 이탈리아: 유럽과의 첫 만남

8월3일 12시45분. 독일의 루프트한자 항공의 비행기를 타고 유럽으로 출발한 저희는 같은 날 오후 10시가 다 되어서야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설레기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로마에서는 별다른 계획도 요령도 없어서 무작정 구글맵과 함께 걷기만 했습니다. 덕분에 관광지는 많이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열정만으로 모든 곳을 둘러보기엔 40도에 육박하는 날씨와 따가운 햇볕 덕에 쉽지 않았습니다. 밤에는 축구 유니폼을 입고 거리를 다니는데 이탈리아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며 축구 응원가를 불러주는 바람에 유쾌한 추억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바티칸 투어를 가기도 했었는데, 투어는 관광지에 대해 해설을 들으며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행의 리듬을 혼자서 결정할 수 없고 본인의 기호대로 특정한 곳에서 오래 머무를 수 없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렇게 로마에서의 3박 4일은 뜨거운 심장만 가지고 이곳저곳 둘러보는 데 그쳤습니다. 사실 처음 여행을 시작한 도시라 돌이켜 봤을 때 남들이 다 간다는 여행지만 쫓고 남들이 여행 와서 다 한다는 행동만을 한 것 같아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다음 도시는 여행일정 중에 가장 좋았던 피렌체! 사실, 피렌체에서는 딱히 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 유명한 두오모 성당도 일요일이라 들어가 보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를 본다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피렌체에서 깨달았습니다. 여행의 백미는 여행지의 음식을 맛보는 것! 티 본 스테이크도 맛보고, 가죽 시장에 둘러 상인들과 흥정도 하고 저녁엔 미켈란젤로 언덕에 앉아 맥주를 마 시며 이런저런 상념에 사로잡혀있던 제 모습에서 여행의 참 재미를 느꼈습니다.

베네치아는 참으로 특이한 곳이었습니다. 버스, 택시, 자가용 심지어는 구급대와 경찰 까지 모두 배를 이용하여 움직이는 물의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책과 미디어를 통해 이러한 사실은 많이 들어 본 적은 있으나, 직접 본 적이 없어서 상상하기 어려웠는데 참으로 신기한 곳 같았습니다. 그리고 섬 전체가 파스텔톤 건물로 가득한 부라노 섬과 세계적인 휴양지 리도 섬에서의 해수욕은 울진이라는 곳에서 나고 자란 '촌놈'에게는 다시 생각해봐도 가슴 벅찬 경험입니다.

여행하면서 느낀 것인데, 유럽에는 한국인 여행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행하면서 회사를 그만두고 여행 온 사람, 현지 유학생, 같은 대구대학교 학생, 고향 후배 까지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며 오히려 가까운 사람들에게 털어놓기 힘들었던 고민거리를 나누면서 그들과 더 친해지고 다른 도시에서 우연히 마주치기도 하며 세상이 좁음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 03 프랑스 : 유럽의 중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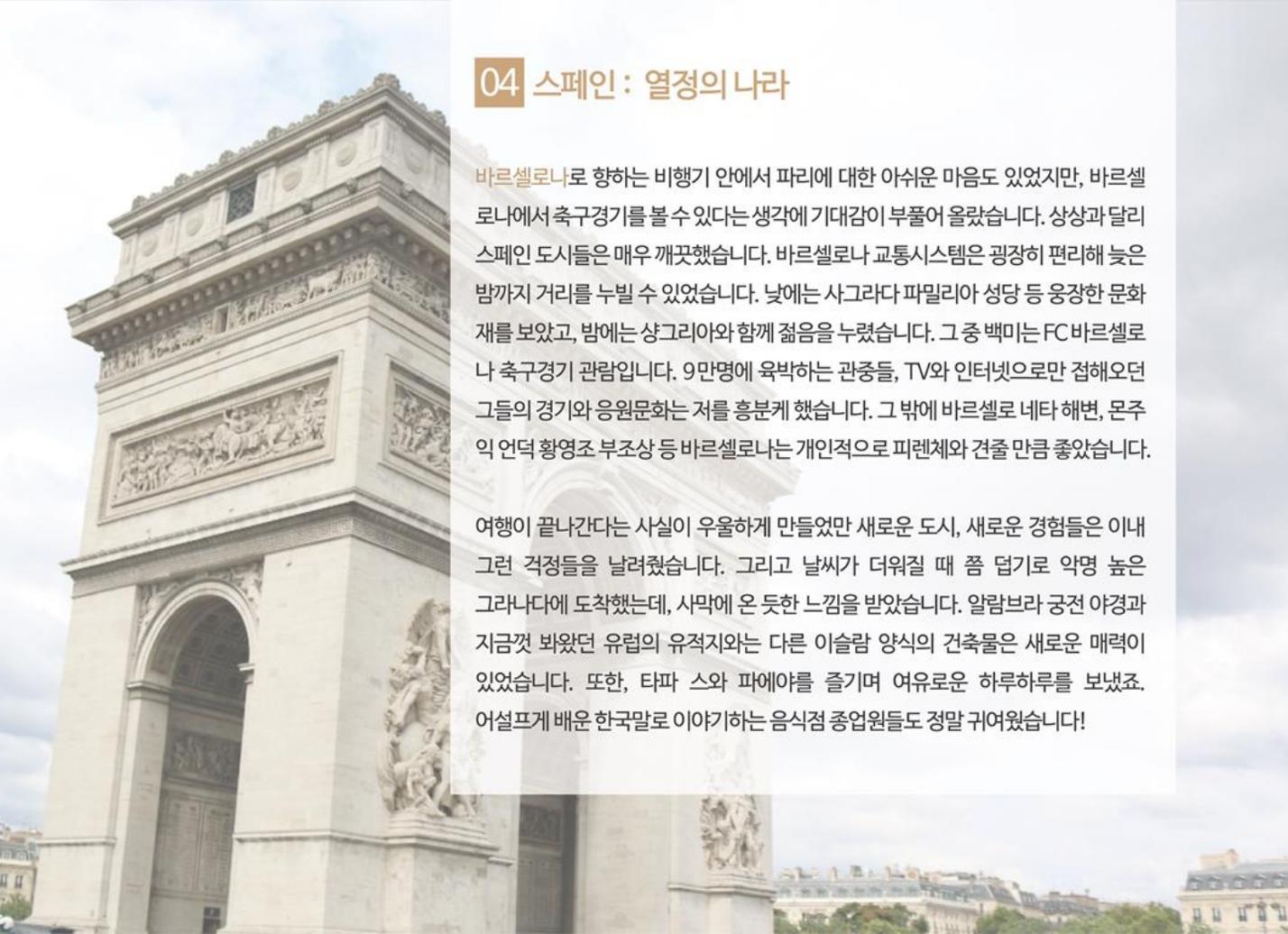
정든 이탈리아를 뒤로하고 베네치아 마르코 폴로 공항을 통해 파리에 도착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파리에 대한 기대가 컸던지라 공항에 내리자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몽피두 센터 근처 숙소로 이동한 뒤, 숙소에서 여정을 풀고 파리의 야경을 보기 위해 나왔습니다. 에펠탑은 맞은편 샤흐 궁에서 보는 것이 좋아하여 메트로 역에 내려 오른쪽으로 나오면 바로 에펠탑이 보이는데 그때 그 감상은 잊지 못할 정도로 웅장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비로소 내가 유럽에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파리가 자랑하는 미술관이나 베르사유 궁전 등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런 문화재와 미술품들을 보면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조예가 깊지도 않거나 오히려 파리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하지만 파리에서 3박 4일 일정으로 무언가를 하기엔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다음에 여행을 온다면 파리에만 오랜 시간 머무르며 여유를 갖고 지내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 04 스페인 : 열정의 나라

바르셀로나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파리에 대한 아쉬운 마음도 있었지만, 바르셀로나에서 축구경기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기대감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상상과 달리 스페인 도시들은 매우 깨끗했습니다. 바르셀로나 교통시스템은 굉장히 편리해 늦은 밤까지 거리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낮에는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등 웅장한 문화재를 보았고, 밤에는 상그리아와 함께 젊음을 누렸습니다. 그 중 백미는 FC 바르셀로나 축구경기 관람입니다. 9만명에 육박하는 관중들, TV와 인터넷으로만 접해오던 그들의 경기와 응원문화는 저를 흥분케 했습니다. 그 밖에 바르셀로나 해변, 문주익 언덕 황영조 부조상 등 바르셀로나는 개인적으로 피렌체와 견줄 만큼 좋았습니다.

여행이 끝나간다는 사실이 우울하게 만들었지만 새로운 도시, 새로운 경험들은 이내 그런 걱정들을 날려줬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더워질 때 좀 덥기로 악명 높은 그라나다에 도착했는데, 사막에 온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알람브라 궁전 야경과 지금껏 봐왔던 유럽의 유적지와는 다른 이슬람 양식의 건축물은 새로운 매력이 있었습니다. 또한, 타파 스와 파에야를 즐기며 여유로운 하루하루를 보냈죠. 어설프게 배운 한국말로 이야기하는 음식점 종업원들도 정말 귀여웠습니다!



그렇게 그라나다를 떠나 마지막 여행지 마드리드로 떠났습니다. 버스를 타고 이동했는데 놀랍게도 좌석마다 태블릿 PC가 장착돼 있어 지루함을 달랠 수 있었습니다. 마드리드로 향하던 길, 태어나 처음으로 지평 선을 봤는데 옆에 앉아있던 외국인은 지평선을 신기하게 보는 저를 더 신기하게 쳐다보더군요. 그렇게 5시간을 꼬박 달려 도착한 마드리드는 조금 차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수도임에도 불구하고 바르셀로나보다 규모가 작은 듯했지만, 정돈이 잘 된 도시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국 여행객들 사이에서 마드리드는 할 게 없다고 '노잼도시'로 불리고 있어요. 하지만 저희는 도착하자마자 AT 마드리드 축구팀의 경기를 보러 나섰습니다. 여행 중 축구관람은 한 번만 할 생각이었지만, 바르셀로나에서 너무 큰 감동을 받아 한 경기를 더 보기로 했죠. 그들의 열기는 무서울 정도로 뜨거웠습니다. 마드리드에서는 축구에 관련된 것만 했던 것 같아요. 레알마드리드의 홈구장 산티아고 베르나베우 투어도 하고 축구용품 샵에서 종일 유니폼을 살까 말까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3주간의 시간은 너무 빨리 흘러갔던 것 같습니다. 처음 떠난 자유여행이자 유럽여행이라 아쉬움이 많이 남기도 했습니다. 또 여행을 가게 된다면, 테마를 잡고 떠나보고 싶습니다. 이를테면 '축구'를 테마로 잡고 축구와 관련된 곳을 중점적으로 가보는 거죠. 이런 테마 여행을 통해서 더 재밌고 깊이 있는 여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04 유럽 여행을 계획하는 학우들께

사실 '어디가 재밌고 볼 게 많다' 말하는 것은 굉장한 실례라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중요시하는 것과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를 다른 사람에게 주입하기보다는 개인적인 감상평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딜 가든 본인 기호에 맞게 떠나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동행인과 타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말이죠. 그리고 굳이 남들이 다가는 여행지를 갈 필요는 없습니다. 진짜 가고 싶었던 곳을 가보세요. 그리고 여행을 떠나서 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사람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조금만 용기를 낸다면 더 재밌고 풍부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여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학우가 한국에서의 취업, 학업, 인간 관계 등 팍팍한 일상에서 벗어나 여유를 갖기를 기원합니다.



청춘들에게

바치다

선율위의의꽃,

누즈서비스

# 악보 위한편의그림

어떠한 특정한 노래 가사 말이나 악기의 사운드가 좋다기보다, 흘러가는 물처럼 잔잔한 선율이 좋다. 그가 들려주는 음악은 화려함보다는 오히려 우아함과 편안함에 가깝다. 장르에 얽매여있지 않아 음악에 있어서 안목도 넓힐 수 있는 기회이자, 우리에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듯한 상상력을 주는 선물이기도 하다. 누자베스, 적어도 내가 생각하는 그의 음악은 그렇다.

누자베스(Nujabes), 1974~2010



일본의 힙합 프로듀서이자 DJ. 그의 예명 누자베스는 본명인 세바 준(Seba jun)을 거꾸로 따서 만든 이름이다. 누자베스의 음악은 주로 재즈힙합이라고 분류되지만, 때로는 뉴에이지처럼 들릴 만큼 벽이 없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도쿄에서 레코드 가게 사장이었던 누자베스는 가게를 시작으로 언더그라운드 Hydeout Productions 을 설립하여 많은 아티스트들과 작업을 하며 음악을 시작했다. 일본에서 2004년에 방영한 만화 <사무라이 참프루> ost에 참여하게 되면서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두터운 팬층을 보유하게 되었다. 작은 레코드샵을 운영하던 그가, 일본 재즈힙합계를 이끌어낸 거장이 된 것이다.

'예쁜 노래' 내가 처음 그를 접하게 된 경로는 사실 잘 기억나지 않는다. 어쨌든 음악을 듣고 가장 처음 든 생각은 단순하게도 '좋다'는 것이었다. 후크송이니 뭐니 하며 신나는 최신 대중음악들도 좋지만, 그런 음악들과는 확실히 달랐다. 특별히 자극적이지도, 화려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반복되는 마디들로 구성되어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짧고 단순한 그 음악이 오히려 내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었다. 잔잔하지만 지겹지 않았고, 느긋했지만 뒤흔치지 않았다. 어떤 이는 강렬하지 않고 가벼운 발걸음처럼 다가오는 그의 음악을 들으면서 부드러운 대화가 오가는 여유로운 도시의 야경의 모습, 그리고 청춘을 바치겠다는 젊은이의 열정보다는 주말 저녁의 여흥과 여유로움과 같은 '풍경'이 떠오른다고 했다. 그렇다면 나는 그의 음악을 '계절'이라고 정의하겠다. 잔잔한 피아노와 악기 선율을 듣다보면 현재에 구애받지 않고 때로는 바다가 떠오르는 여름이, 한편으로는 조용하고 쓸쓸한 주황빛 거리가 생각나는 가을이 된다.

'별이 지다' 안타깝게도 불의의 사고로 몇 년 전 그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많은 팬들에게도 슬프고 충격적인 일이었다. 그로 인해 일본에서도 뒤따라 많은 앨범이 많이 만들어질 만큼 조금은 생소했던 '재즈힙합'이라는 장르가 크게 성행하게 되었고, 오늘날 '재즈힙합'이라고 하면 일본이 생각날 만큼 크게 발전하게 된 시작점은 그가 있었던 것이다. 우리가 놓쳐버린, 더 이상 잡을 수 없는 음악에 대한 아쉬움은 아직도 많은 사람에게 크게 남아있다. 짧고 굵었던 생애만큼이나 음악도 누자베스를 닮아 현재까지도 우리에게 여운을 주고 있다.

# 몽글몽글한 감성의 에이틴 트레블러 슬구의 이야기

누구나 인생에서, 죽기 전에 한 번쯤은 이뤄보고 싶은 소원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버킷리스트'라고 부른다. 그 '버킷 리스트'를 천천히 자신만의 스타일로 꾸며가고 있는 열여덟 여고생 슬구의 이야기를 소개하려 한다.

'우물 밖 여고생'은 '슬구'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평범한 대한민국의 고등학생이 자신이 다녀온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과 그때 느낀 감정들을 짧게 써내려간 것들을 한데 모아 엮은 책이다.

고등학생, 대한민국에서 이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생각하면 그저 숨이 막혀 온다. 닭장 같은 교실 안에서 남들보다 더 잘나지기 위해 기를 쓰고 발버둥 치는 아이들. 과연 그 과정이 행복할까. 나를 포함한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은 고등학생 시절을 그리 행복한 기억으로 가지고 있지 않았다. 고등학생에게 행복은 그저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 이 대한민국의 고등학생들. 하지만 왜 그들에게 행복은 먼 미래의 일일까. 지금 현재의 일이 되면 안 되는 것일까? 슬구의 여행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우리는 그저 학생일 뿐, 미래에 행복해지기 위해 노력하는 지금의 삶이 불행하다면 내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던 슬구, 그래서 그녀는 카메라를 챙겼다. 짐을 싸서 들고 핸드폰을 손에 쥐고서 여행을 다녔다. 슬구의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다운 삶을 찾는 것,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다. 사실 여행을 한다는 일 자체는 신기한 일이 아니다. 누구나 할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하지만 '혼자'와 '여고생'이라는 수식어가 붙음으로써 슬구의 이야기는 특별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겐 동경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슬구는 항상 강조한다. 자신을 자랑하겠다는 의도도 아니고, 특별하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그저 이런 여행을 하고,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알려주고 싶었다고 한다. 너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니 용기를 가지라고 글과 사진으로 전달하고 있을 뿐이라고 슬구는 말했다. 슬구의 글을 읽다 나는 당연하게 내려고 읽고 넘겼던 부분을 자세히 읽어보니 나라고 쓰여 있던 경험을 한 적이 있다. 슬구의 여행에서 슬구는 오로지 자신만을

생각한다. 이기적인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어떤 모습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 때 가장 행복한지를 찾는 데에 집중하는 것이다. 온전한 내가 어떤지를 파악하고 있는 슬구는 자신을 아는 만큼 힘들어 보이는 남을 위로하는 방법도 아는 듯했다. 소제목 아래 슬구가 쓴 짧은 글들, 친구에게, 때로는 언니 동생에게 말을 건네듯 적혀져있는 이야기들을 볼 때면 특히 더 그랬다. 많은 사람에게 읽혀지는 책보다 한 사람의 마음에 오래 머물다 가는 책이 되고 싶었던 슬구의 말. 힘내라는 말이 쓰여 있지 않아도 그녀의 글에서 괜찮아, 힘내라는 말들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진하게 새겨졌다.

나는 학교 기숙사로 올라가는 기차 안에서 이 책의 첫 장을 넘겼다. 그 전까지만 해도 나는 울산에 살면서 스무살이 넘도록 혼자서 옆 지역을 가 본적이 한 번도 없었고, 기차는 학교와 본가를 왔다 갔다 하는 기차에 버스는 동네 마을버스가 전부인 좁디 좁은 세상에 살고 있었다. 친구들과 놀 때에도 나는 크게 지역을 벗어나는 일이 없었고, 직접 경험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크게 두고 살지 않았다. 그만큼 나는 아주 작은 우물 속에서만 살고 있었고, 이런 삶에 딱히 싫증이 나지도 않았다. 하지만 슬구의 이야기를 보면서, 나는 처음으로 내 우물 속에 싫증을 느꼈었다. 책의 마지막장을 읽고 난 뒤 왠지 모르게 눈에서는 눈물이 차올랐다. 자신이 쓴 책의 마지막장까지 함께하면서 이 책이 당신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던 슬구의 말에, 이렇게 나이를 먹고도 아직도 나를 제대로 찾지 못한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이 밀려왔을 때, 그래도 괜찮다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말해주는 것만 같은 슬구의 글에 정말로 내가 위로를 받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눈물을 흘렸던 것 같다.

열아홉 여고생의 일상 같은 여행담을 추천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슬구의 이야기가 있다.

'넓디 넓은 세상에 비하면 우리의 인생은 한없이 짧다. 우리는 부지런히 걷고, 경험하고, 또 행복해야 한다.' 사막 같은 삶에 자신의 오아시스를 찾길 바라는 마음을 가지며, 당신의 인생이 이 책으로 인해 오아시스를 찾는 과정에 조그만 위로가 되었으면 하고 바래본다.

찾았다  
내 학식  
내가  
찾던  
학식



우리네 삶과 절대로 떨어야 할 수 없는 식생활, 당신의 식사는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학생들의 지갑사정과 엄마밥이 그리운 대학생들에게 학생식당 만큼 행복한 곳이 없을 것이다. 특히 대구대학교는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메뉴들을 다양한 식당에서 맛 볼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다. 3년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쌓아온 학식 내공을 오늘 한 번 풀어보려 한다. 매일 점심시간마다 무얼 먹을지 고민이 긴 학생들에게는 소소한 깨알 꿀팁이 될지어니 눈여겨 보시길!



8호관의 소울푸드 '중화 비빔밥'

정오부터 오후4시까지지만 판매되는 중화요리중 단연 甲이라 할 수 있는 중화비빔밥이다. 38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이모들의 푸짐한 인심이 더해져서 만들어진 한마디로 미친 메뉴다. 적당히 매콤한 소스에 아삭아삭 씹히는 야채와 중간중간 더해지는 고기의 고소함. 방학때면 이 중화비빔밥이 생각나서 얼른 개강하고 싶을 정도. 300원을 내야 먹을 수 있는 계란후라이가 중화비빔밥에는 공짜로 나온다니.

중비 is 원들

꼭 먹어봐야할 메뉴다. (밥이 싫은 사람에게는 비슷한 소스의 면인 '야끼우동'이 있으니 걱정 하지 말 것)



고기와 쌈을 한그릇에 담았다. 환상의 케미! '생야채 불고기비빔밥' (줄여서 생야채)

이 메뉴로 말 할 것 같으면, 8호관식당에서 가장 가성비 좋은 메뉴로 이틀에 한번 꼴로 먹어도 질리지 않는 마성의 메뉴라 할 수 있겠다. 매콤달달한 제육볶음과 아삭아삭한 생야채의 케미야, 이 맛을 어찌 글로 설명 할 수 있으리. 녹록지 않은 대학생들의 지갑사정에 딱 맞는 저렴한 메뉴이면서 우리 몸에 부족한 단백질과 영양소들을 한 번에 챙기는 그야말로 효자메뉴인 것이다. 넘쳐 흐르는 이모님들의 정은 그릇에 밥을 꼭 채웠다. 한 그릇 해치우면 포만감이 넘쳐 행복이 밀려온다. 당신의 선택에 후회는 없을 지니 생야채 한 그릇 하실래예?



이것도 먹고싶고 저것도 먹고싶은날엔? '중화정식'

메뉴판 앞에 서서 뭘 먹을지 고민하는 시간을 확 줄여주는 메뉴다. 8호관 식당의 자랑인 중화요리 중에서도 가장 핫한 메뉴들만 모아 궁합을 이루고 있다. 만수르 정식이 부럽지 않고! 일단 양이 어마무시하게 많다. 배고픈 대학생들의 주린 배를 채워 주는 천국의 푸드가 아닐까 생각한다. 달달한 탕수육과 중국집 못지 않은 퀄리티의 짜장면 그리고 심심한 듯 심심하지 않은 볶음밥의 조화는 그야말로 기가 막히다. 특히 볶음밥에 짜장소스와 섞어먹거나 탕수육의 새콤달달한 소스를 섞어 먹으면 그 또한 메뉴가 되니 한 점사에서 5가지 조합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이다. 짜장면만 먹기엔 아쉽고, 탕수 짜장밥을 먹자니 면이 먹고싶고 모든 해결을 단돈 4000원에 해결 해줄 착한 중화정식 내일 점심은 너로 정했다.

# Congratulation, ECHO

:울림

Soyez fier de vous

당신을 자랑스러워하라

학생회장 이영운

안녕하세요! Luv학생회 학생회장 12학번 이영운입니다. 올해 처음 창간하게 되는 웹진인 ECHO, 그 첫걸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함께하고 소통하며 초대해서 더 높은 곳으로 향하는 기회의 발판이 될 ECHO. 뛰어난 교수님과 학우 여러분들이 같이 합심해 만든다고 하니 더 기대가 많이 됩니다. 처음 시도하는 것인 만큼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작은 한 걸음 한 걸음이 쌓여 큰 도약을 이루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걸음에 저도 함께 동참해 큰 도약 이루게끔 노력해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ECHO, 그 첫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신문방송학과 아니 미디어커뮤니케이션의 좋은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MC+ 총괄팀장 정아름

ECHO 웹진의 창간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재미있고 신선한 콘텐츠로 가득가득 채워지길 바랄게요! 웹진 ECHO가 내딛는 힘찬 첫 발걸음에 엠씨플러스가 응원합니다. 파이팅!!

중구에서 온 대구대학교 학생부교

热烈祝贺ECHO创刊号发行!!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학과의 능력과 빛을 발하기를 기대합니다!! 발전적인 토론의 장, 소통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祝ECHO越办越好! 加油! ㄹ(^ω^)/

졸임생 11학번 정은수

대구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웹매거진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나날이 발전해가는 신방과! 멋집니다. 제가 다닐 때 있었다라면 더 좋았을 텐데요! 후배분들이 부럽네요. 앞으로 이 매거진을 통해 신방과 아니 새롭게 바뀐 미디어커뮤니케이션 학과 소식을 접할 테니 다양하고 알찬 소식 부탁드립니다!^^

1학년 과대 16학번 권예환

자랑스러운 우리 학과의 웹진 탄생을 축하하며-ECHO의 뜻처럼 우리가 모두 함께 소통하고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전공자다운 사명감을 가지고 배움의 길은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졸임생 11학번 서디혜

대구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웹진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슬로건 'ECHO'에 걸맞게 당신이 만드는 울림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 되기를 늘 응원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알차고 많은 소식 기대하겠습니다.

우리대학 신문방송학과에서 미디어커뮤니케이션으로 학과 명칭이 변경되고, 웹진 'ECHO'를 발간한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저는 먼저 'ECHO'의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E는 Engaging이라는 뜻으로 '함께 한다', C는 Communication이라는 뜻으로 '소통', H는 Hosting이라는 뜻으로 '주인'으로서 모든 것을 관리하고 책임진다, O는 Outreaching로 '경계를 넘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함께 소통하고 넓은 세상의 이야기를 담아서 목소리를 전달하는 참된 지성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과의 무궁한 발전을 바라며,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고백건대 '따스함'이 있습니다. 손수레와 같은 힘은 우리의 자랑입니다. 힘이 들 땐 끌어주는 따뜻한 '스승'이 있고, 어려울 땐 밀어주는 정겨운 '벗'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입니다. 'ECHO'의 작은 울림이 대구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가족 간의 소통, 동행을 넘어 세상의 큰 메아리가 되어 돌아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ECHO'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꽤 괜찮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웹진의 탄생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만큼 중요한 것은 현재에 발맞춰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많은 이들이 기본 종이 매체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시도하고 도전하는 웹진. 이에 발맞춘 꽤 괜찮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의 웹진은 앞으로의 모습이 대단히 기대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무언가를 키워낸다는 것은 너무도 힘든 일. 많은 장애물에 가로막힐지언정 그 마지막에 맺게 될 열매는 무엇인지! 모두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대구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ECHO'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ECHO'에서 전하는 목소리가 독자들의 가슴속에 울려 퍼지는 따뜻한 메아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ECHO'가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많은 힘이 되어주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해마다 발전하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졸업생으로서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웹진 'ECHO'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미디어 생태계를 선도하는 매거진으로 자리매김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화이팅